

16SS Germany

국제유행색협회(INTERCOLOR)에서 제안한 2016 Spring/Summer시즌 국가별 컬러 분석



2016년 봄, 여름의 국제 유행색 결정을 위한 INTERCOLOR의 102번째 회의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2014년 5월 25일부터 27일, 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INTERCOLOR는 “컬러는 국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서로 간의 동의 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는 INTERNATIONAL COLOR CONFERENCE의 논의 하에서 1963년 처음 시작되었고, 년 2회 INTERCOLOR 회의 개최로 실행에 옮겼다. INTERCOLOR CONGRESS는 년 2회 회원국의 도시에서 진행되며, 2년 앞선 시점에서의 LOCAL COLOR CONCEPT과 회원국 제안 컬러를 통해 시즌의 컨셉과 COLOR CARD를 결정, 제안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중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태리,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타일랜드, 터키, 영국)의 컬러 전문가들이 각국의 제안 컬러 발표와 국제 유행색 결정을 위해 참석하였으며, 특히 주목할만한 시선을 받은 국가들에 대한 컬러 경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016년 봄, 여름의 국제 유행색 결정을 위한 INTERCOLOR의 102번째 회의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2014년 5월 25일부터 27일, 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INTERCOLOR는 “컬러는 국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서로 간의 동의 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는 INTERNATIONAL COLOR CONFERENCE의 논의 하에서 1963년 처음 시작되었고, 년 2회 INTERCOLOR 회의 개최로 실행에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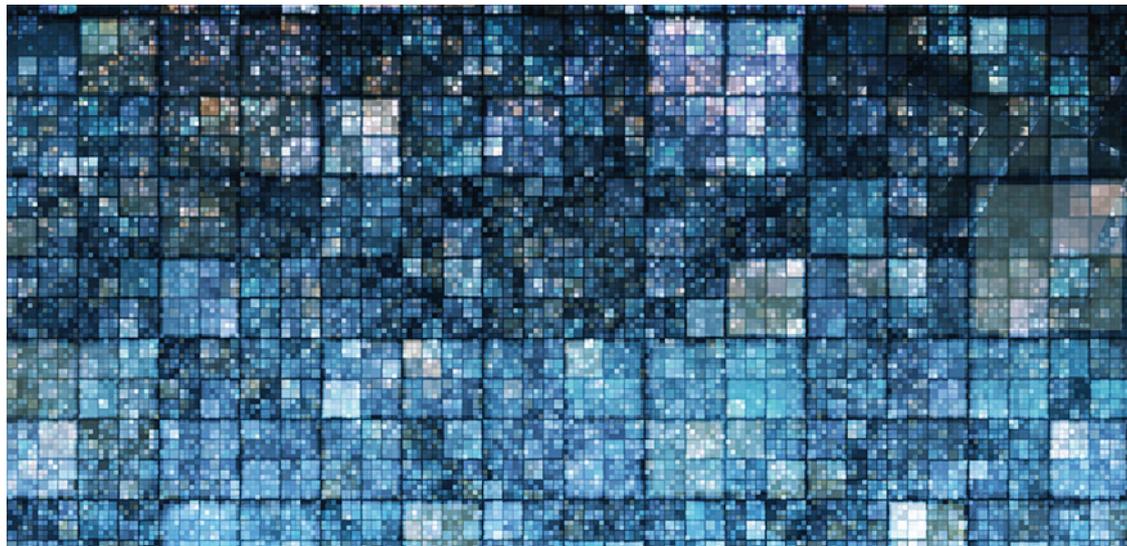
INTERCOLOR CONGRESS는 년 2회 회원국의 도시에서 진행되며, 2년 앞선 시점에서의 LOCAL COLOR CONCEPT과 회원국 제안 컬러를 통해 시즌의 컨셉과 COLOR CARD를 결정, 제안한다.
한국은 1992년부터 CFT가 INTERCOLOR의 정식 멤버로 회의에 참석하였고, 다음해 6월 61번째 회의부터 참여하여 발언권을 갖기 시작했다.

컬러는 모든 산업의 트렌드에서 가장 빠르게 결정되고 파급력을 가진다.
특히 각국에서 제안하는 컬러는 주요 국가와 그 인접국의 컬러 트렌드 경향 파악, 컬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들의 동향, 현지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상품기획 등 비즈니스에서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소개하는 세번째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1963년 INTERCOLOR 회의의 설립 멤버이자, 1950년대부터 독일의 디자인 및 재료의 컬러 권위적인 기관 Deutsches Mode Institut (DMI, www.deutschesmodeinstitut.de)의 Niels-Holger Wien가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독일은 트렌드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적인 컬러들을 제안해오고 있다.

I . Theme

BIG DATA



이미지 설명 여러 컬러의 빛을 촬영하여 조합하여 보면,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를 이루었을 때 본연의 컬러는 없고 하나의 컬러로 혼합되어 보인다.

오늘날의 데이터(data)는 미래의 자원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즘 화두인 빅데이터(big data)는 희망을 상징한다. 더 많은 데이터들은 더 많은 지식, 투명성, 진보의 결과를 낳는다. 이런 데이터간 융합에 의한 비판적 사고는 디지털 라이프로 인한 우리의 감각에 많은 도전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해 매우 고무적이다.

무엇이 진짜이며, 어떤 것이 디지털인가? 디지털이 아날로그 제품을 대체하고 있는가? 혹은 디지털이 아날로그 이외의 어떤 것을 추가하는가? 너무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탐험하기도, 가치를 매기기도,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모든 것이 모든 곳에 영원토록 존재한다면, 더 이상 특별할 것도 없다! 영원한 존재로서의 파편화된 현실을 위해, 더 많은 선택을 돕도록 새로운 감각 중추를 여과시킬 필요가 있다.

디지털(digital)은 진짜이면서 감각적인 물질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사적이면서 아날로그로의 조우를 필요로 한다. 너무 야단스럽게 시끄러운 것보다는 평정을 선호하고, 획일화보다는 다양성을 선호한다. 명확성을 표현하는 광명과 빛의 컬러들을 선호한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과 제품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한다. 빅데이터의 시대에서는 다양한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특별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II. Influence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당사자들은 반드시 그것이 미칠 파급 효과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단지 나의 관점에만 속한 데이터를 고집하지 말고 **여러 다양한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어 작업할 수 있길 바란다.

5_Inv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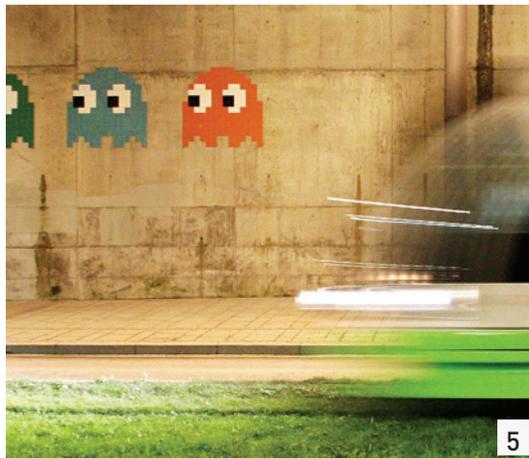
_Pacman, Space Invaders

6_Overflow

_DKelly Goeller, Pixel Pour, Streetart

7,8_Overload

_Jihyun Ham, Information Overload Poster



II. Influence

데이터를 특별한 관점, '나의 관점(i-perspective)' 으로 보는 예. 구글 글래스는 긍정성의 측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구글 글래스를 착용한 사람이 지하철에 탑승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하철 칸에서 내렸다고 한다. 촬영 당하기를 원치 않았고, 촬영된 데이터에 남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9_i Perspective

_View through Google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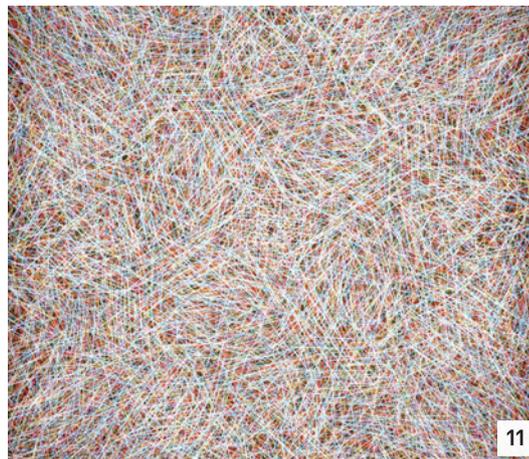
10_Overcharged

_David Bowman, 2001, A Space Odyss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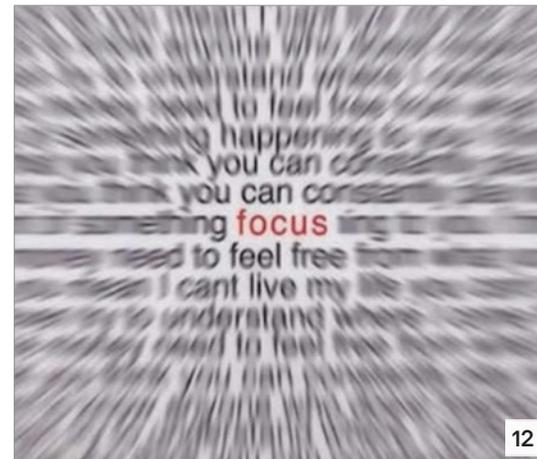
11_Accumulate

_Niko Luaoma, Light Traces (Analogue Photography)



12_Focus

_Typogra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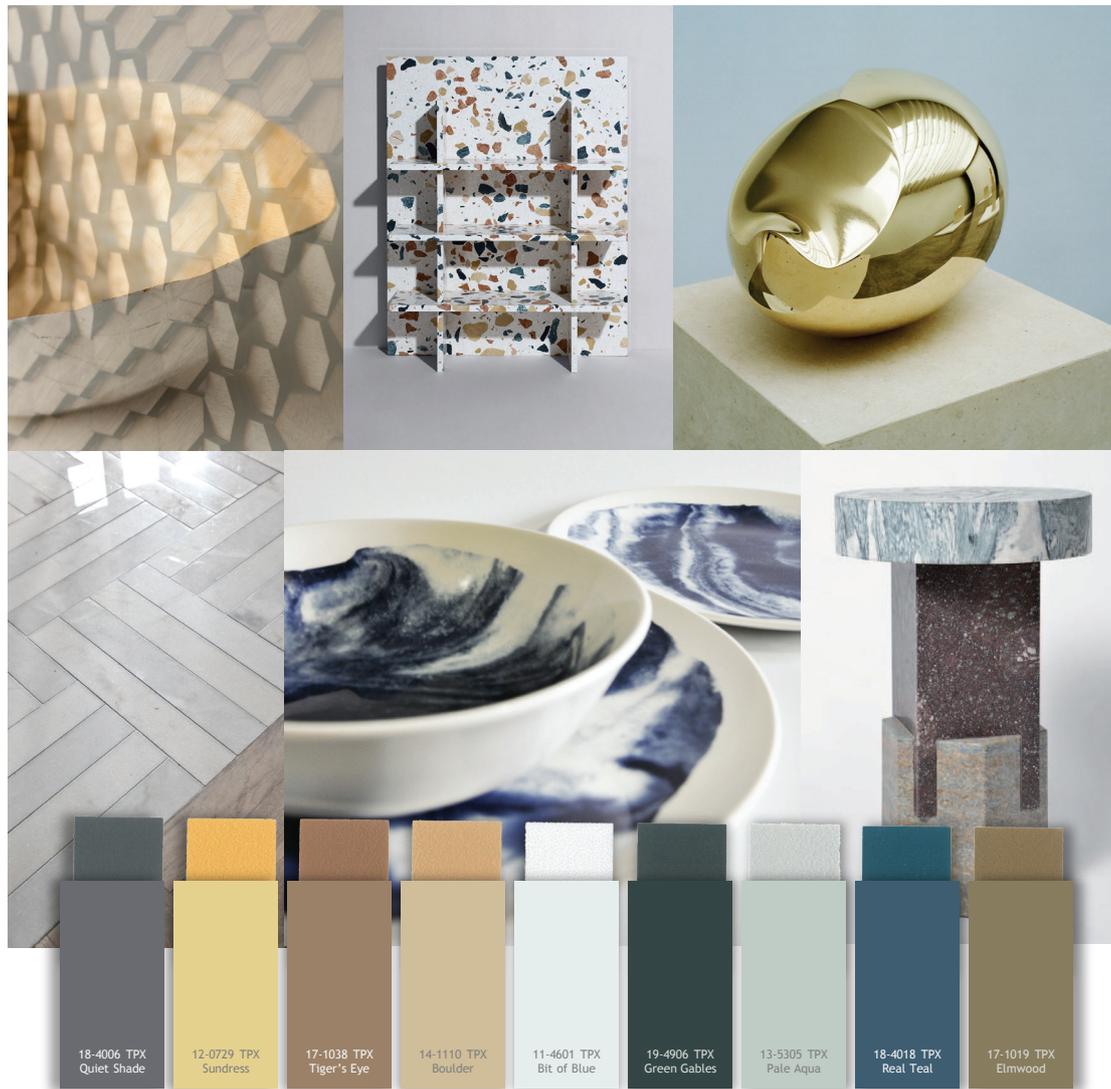
III . Color Proposal

일상의 물질

독일이 제안하는 첫 번째 컬러 그룹은 일상의 물질(Normaterial)이다. 디지털 리얼리티를 넘어, 촉각의 물질 세계를 경험한다.

단순함 안에서 특별함을 감지하는 것은 물질주의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공란(blank), 장식되지 않은 물질이 냉정한 컬러 하모니에 구체적이면서도 유쾌하게 영감을 주며, 단순함을 경험으로 만든다. 본질만 남긴 채, 이외의 것을 과감하고 실용적으로 축소를 함으로써 넘치는 정보와 과잉공급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The shades: slate, golden ocre, red chalk, clear beige, latex white, graphite, lucid glass, summer denim, olive grey



III . Color Proposal

생물낙원

독일이 제안하는 두 번째 컬러 팔레트는 '생물낙원 (Biopian)' 이다. 추상적인 유토피아를 넘어, 인공적인 신선함을 자아내며, 텍스처(texture)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컬러는 보다 단순하게 표현된다.

소프트한 파스텔들은 퓨처리스틱(futuristic)하면서도 부드럽고 감각적인 외관들로 표출된다. 화이트(White) 소재는 분위기를 리드하며 흡습을 데 없는 음울의 조성(tonality)과 중성적인 중립(neutrality)을 표현한다.

The shades: copper light, rose veil, cherry sherbet, raw cotton, synthetic white, clear chalk grey, mespel yellow, troubled water, spearm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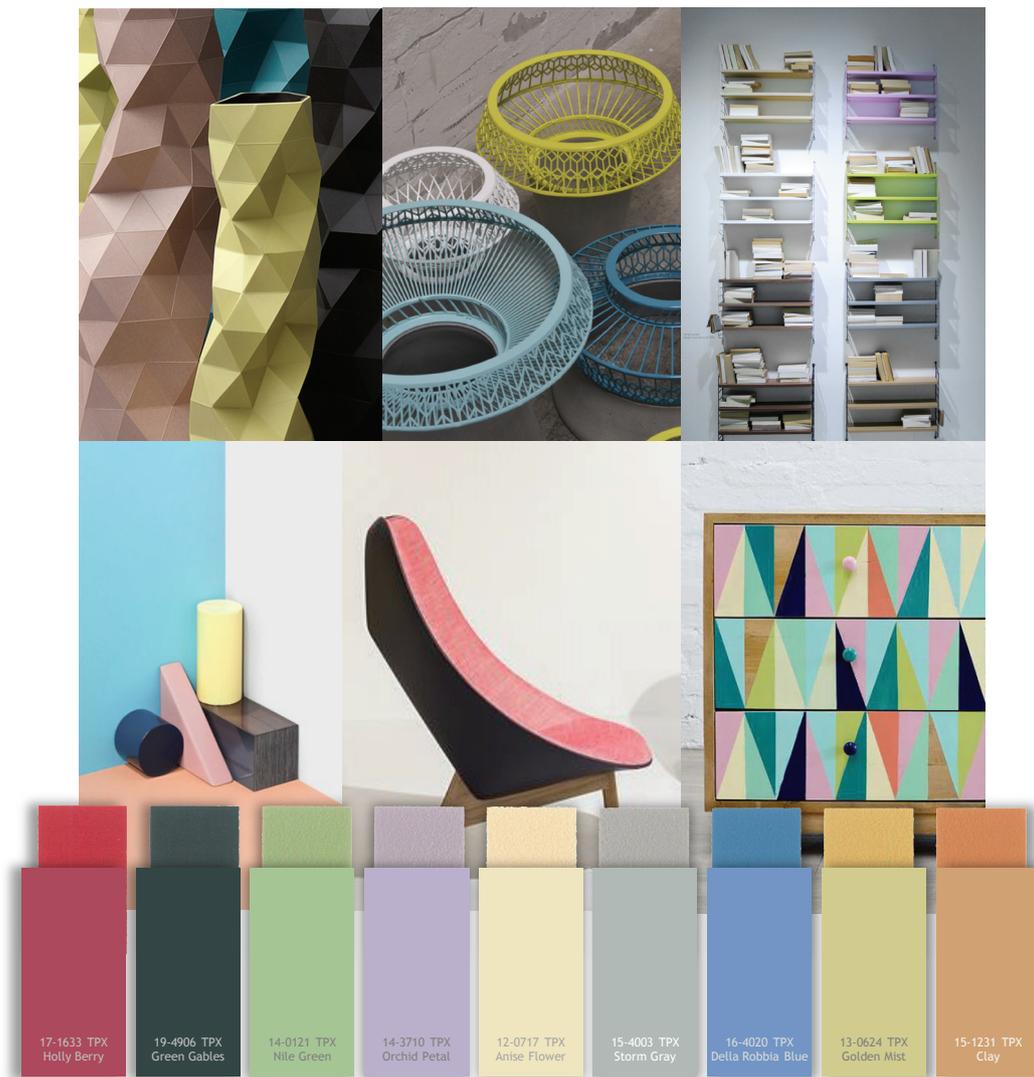
III. Color Proposal

시간의 논리

독일이 제안하는 세번째 컬러팔레트는 시간의 논리(Chrono-Logic)이다. 속도를 느리게 통제하면서 느낌을 발견하고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속도를 넘어서, 침묵의 섬을 만들어낸다. 스포츠 소재에서 사용되는 선명한 그래픽은 편평함(flatness)과 견고함(solidity)에 의해 재정의된다. 부드러운 파스텔이 스포츠의 컬러들과 함께 선명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리듬감을 표현한다.

The shades: gamet red, green shadow, bud green, pale viola orchid, vanilla cream, crystal grey, radiant aquamarine, lime blossom, light c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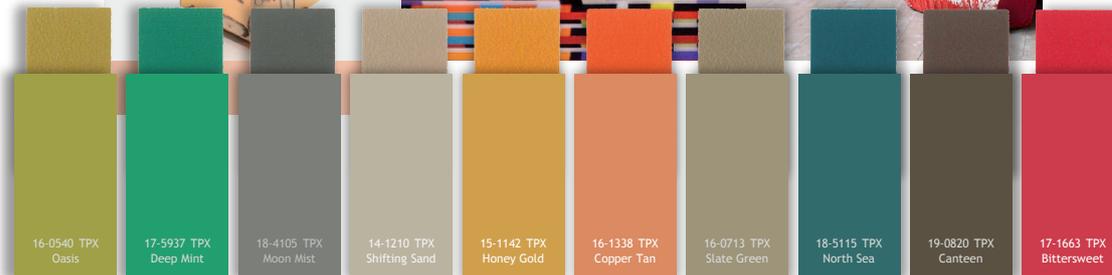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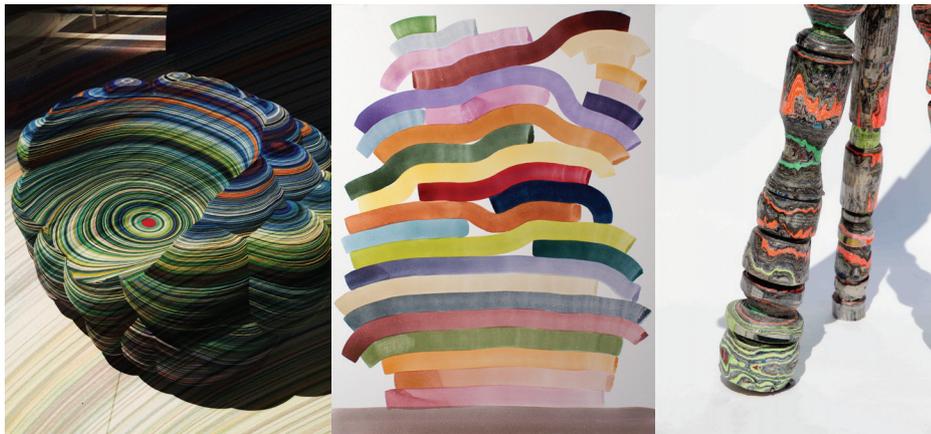
III . Color Proposal

혼란

독일이 제안하는 마지막 컬러팔레트는 혼란(Chaotic)이다.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통합하여 신선하고, 실용적이며, 객관성을 넘어서서 도시 안의 다양성을 표현한다.

네트워크 망과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다른 관점을 포용하고 통합하며, 이를 신선한 아이디어로 만들어 낸다. 크래프트(craft) 소재들을 사용하여 복잡하게 연결된 구조들을 단순화시킨다. 컬러의 리듬은 원색적인(primary) 컬러의 강도와 중성적인 뉴트럴(neutral) 컬러 사이에서 울려 퍼진다.

The shades: golden green, wakame, warm grey green, linen melange, yellow orange, papaya, dry tree green, peacock blue, coconut brown, ultimate red



IV. National Color Card

16SS, GERMANY



National Color Proposal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렌드센터(CFT)에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디자인 산업에서 컬러 트렌드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는 디자인DB(<http://designdb.com/>)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

(재)한국컬러앤드패션트렌드센터 전략기획팀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5, 남도빌딩 5층
T. 02)549-2362 F. 02)549-4745 H. www.cft.or.kr

(CFT) (재)한국컬러&패션트렌드센터